

“생사라도 알았으면” 애타는 5·18 행불자 가족들

1980년 5월, 7살 행방불명 이창현군 어머니 참배 시민들 “행불자 조사 철저...국가폭력실체 밝혀야”

“내 아가 창현아, 엄마 왔다, 어디 있니...내 아들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치러진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에선 42년 전 행방 불명된 아들을 찾는 노모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1980년 5월 19일, 당시 일곱살이던 이창현 군은 외환원인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을 나선 이후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행방불명됐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어느덧 42년.

아들의 운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 김말입(78)씨는 아들의 묘지

에 노랑 케이크와 주스 3개를 올려놓았다.

“7세 나이로 학교를 다닌 지 2개월, 내아들 창현이를 가슴에 묻는다. 망월동에 고이 잠들어라”. 어머니는 아들의 묘비명을 연신 쓰다듬었다.

김씨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손으로 사진으로만 남은 아들의 돌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러면서 “죽어도 좋으니, 제발 행방만 찾게 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땀한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당시 아들을 인계 받은 헌병이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행방불명자 이창현 군의 가족이 참배하고 있다.

나고 싶다”며 “올해는 꼭 아들 생사라도 꼭 알 수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김용범 기자

삼엄한 경비 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민주묘지 안팎 경찰만 4000명 투입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펼쳐진다.

1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40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광주경찰은 중대당 70~80여 명에 달하는 기동대 40개 중대 등 총 57개 중대를 투입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동원된 행사·강력·정보과 직원들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파견된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경호 인력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민주묘지 초입인 북구 장등동 용호마을 인근에서부터 약 5m 간격으로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 버스까지 주변 도로에 빼곡히 주차돼 삼엄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 속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기념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단계·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하게 경비한다. /김용범 기자

화정 아이파크 안정화 작업 추진...‘안전 최우선으로’

서구, 7·8월 우기 전까지 201동 위험 요소 제거 목표

서구가 지난 1월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 사고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은 입주예정자들과 생계에 피해를 입은 주변 상인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건축물의 해체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201동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동 안정화 작업은 붕괴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변위가 발생하고 있는 남측 외벽과 동측 기둥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까지 해체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행 작업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201동 안정화

작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와 고용노동부의 일부 작업중지 해제심의 그리고 서구청으로부터 안전조치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정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를 진행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부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를 2차례 개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청 또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제출한 안전조치계획서를 면밀히 검

토한 결과, 인근의 급호하이빌 상인들과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보완하도록 지시했으며, 완벽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정화 작업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정화 작업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확보해 201동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7~8월 본격 우기 전까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서구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관계자는 “201동 남측 외벽과 동측 기둥은 강풍 또는 우기 시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정화 작업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확보해 201동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7~8월 본격 우기 전까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서구청 또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제출한 안전조치계획서를 면밀히 검

/이달호 기자

순천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순천소방서는 봄철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와 노유자 시설 등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권장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K급 소화기는 2017년 법령을 개정해 ‘소화기규격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통해 의무설치가 명시돼 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며,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순천=조순의 기자

영광 돼지축사 불...야산으로 번져

강풍 타고 인근 야산 번져...5시간 만에 진화

영광의 돼지농장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림 피해로 이어졌다.

18일 소방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8분께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난 불이 인근 오미산(해발 175m)으로 옮겨 붙었다.

축사가 타며 일어난 강한 불길은 초속 6m의 순간 돌풍을 타고 오미산 정상부로 크게 확산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오전 5시 28

분께 일출과 동시에 헬기 8대를 투입하고 나서야 산 정상부에 남아있던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산불은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이보다 앞서 발생한 돼지농장 불은 오전 8시 20분께 모두 진화했다.

이날 불로 축사 125개 동 중 8동이 타고 돼지 1만여 마리가 타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산림은 2.5ha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영광=서종민 기자

광산구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오월음악회 개최

광산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2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는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광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음악을 매개로 국내·외 예

술단체와 함께 만드는 교류·협력의 무대다.

올해는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광주의 이념으로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한다.

‘오월 광주에서, 평화를 노래하다 : Peace for Ukraine’이라는 주제로 광산구립합창단과 함께 뜻을 모은 3

개 예술단체가 합창공연 및 협연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GIC) 산하 음악단체인 ‘클라비레’의 첼로 연주 및 여성중창 공연을 시작으로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아리랑’, 광주흥사단합창단의 ‘아침이슬’, ‘광야에서’, 광산구립합창단의 ‘Dona Nobis Pacem(우리에겐 평화를 주소서)’, ‘진달래꽃’ 등의 순서로 오월정신과 평화의 의미를 담은 하모니가 이어진다. /이동진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